

미래 경영의 청사진  
기업의 **인권** 존중-3

“해외모범사례” 편





Unilever

# ① 선언의 모범사례 **유니레버**

( 선언 부문 8점 만점 )

유니레버는 인권정책성명을 통해  
**OECD 다국적 기업  
가이드라인을 준수**한다고 선언했습니다.

2006-2009년 OECD 국내연락사무소 터키지부와 영국지부에 노동조합들이 진정을 5차례 접수하였고, 유니레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협조했습니다.

(출처 : CHRB 2020 평가표, 유니레버 인권정책성명)





## ② 인권실사의 모범사례 **에니**

( 실사부문 12점 만점 )

에니는 **4가지 분야**  
(**직장내, 공급망 및 협력사, 지역사회, 안보**)에서  
**13가지 주요 인권 이슈**들을 구분하여  
**리스크와 영향**을 평가해오고 있습니다.

대표적인 성과로 미얀마에서 경영활동을  
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,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사회  
(지진 도급업자와 지역 하청 계약자 등)의 의견을  
반영하여 일반근로조건을 미얀마 노동법과  
주요 국제표준에 맞도록 개선했습니다.

(출처 : CHRB 2020 평가표, Eni FOR Human Rights, 2020)





# Nestlé

Good food, Good life

## ③ 구제조치의 모범사례 **네슬레**

(구제 부문 6점 만점)

네슬레는 **자체 고충처리 시스템**인  
“**Tell us**”를 개발하여 **진정을 접수**하고 있습니다.  
내부 근로자뿐 아니라, 외부 이해관계자들인  
공급망, 지역사회, 협력사 모두  
메시지를 통해 손쉽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2017년에는 613건의 진정이 접수되었고,  
그 중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32건에 대해  
가해자에게 경고문 발부, 가해자의 해고 또는 퇴사,  
문제된 협력사 서비스 종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.

(출처: CHRB 2020 평가표, Nestle Speak up 홈페이지)





SAMSUNG



KIA

본 평가에는 삼성전자, 포스코, SK하이닉스,  
현대차, 기아차 등 한국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
앞으로 더 다양한 산업계가 평가될수록  
더 많은 국내기업들이 평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.

국내기업들도 **인권존중을 위한**  
**인식 전환과 노력**이 필요합니다.



HYUNDAI





법무부도 국내기업들이  
인권 경영을 쉽게 이해하고,  
이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 
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